

# 변혁정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 공동소집권자 : 김소연, 김일섭, 이호동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경향신문사 본관 13층 (우)100-702 ■ 이메일 : revolparty@gmail.com

문서번호 : 변혁모임 2012-10-01

시행일자 : 2012. 10. 15

수 신 : 노동·시민·사회·학생 제단체 및 개인

참 조 : 노동·정치담당자

제 목 : 2012년 대선 노동자대통령 후보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에서는 지난 10월 13일 400여명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인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변혁모임 활동가대회에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운 노동자를 대통령후보로 추천하고,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와 다가오는 경제대공황에 맞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저희들의 제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아래와 같이 2012년 대선 노동자대통령 후보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2년 10월 1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 논의 : 노동자대통령 공동대응 방안
- 별첨 : 변혁모임 기자회견문 및 대선투쟁계획
- ※ 문의 : 변혁모임 기획단 박점규(010-9664-9957). 끝.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

공동소집권자 김소연 김일섭 이호동(직인생략)

## 2012년 노동자대통령 선거 투쟁 방침

### 1. 대선투쟁의 목적

- 대선이라는 정치 공간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투쟁을 조직화한다.
- 대선투쟁을 통해 현장투쟁과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계급의식을 고취한다.
-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자 정치를 강화하는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2. 기조

#### 1)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 시장이나 거리를 다니며 악수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우는 선거 투쟁을 전개한다.
- 정리해고의 상징 쌍용차,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 현대차와 재능교육,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의 거점 강정마을 등 투쟁하는 현장에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구속을 각오한다는 결의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2) 탐욕의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대선투쟁

-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보완하거나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1%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을 전개한다.
-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산업재해를 일삼는 악질자본가를 구속시키고 재산을 환수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회 복지에 사용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 3)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 계급정치 강화

- 노동현장과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묻지마 야권연대'로 표를 구걸하는 선거가 아니라 현장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한다.
-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악질 자본가 구속과 재산 사회환수 등 1% 탐욕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자 민중의 근본적 요구를 내걸고 대선투쟁을 전개해 여야 자본가 후보들의 본질을 폭로한다.

### 3. 슬로건 및 요구

#### 1) 슬로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 2) 요구의 원칙

-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원칙으로 한다.
- 경영참가, 사회적 기업 등 탐욕의 자본주의를 유지, 보완하는 요구가 아니라 체제를 변혁하는 요구를 내건다.

## 3) 세부적인 요구

-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 투쟁사업장 주요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사회헌장, 투쟁하는 민중의 요구 등을 모아 대선투쟁의 요구로 총화한다.

### <노동>

- 정리해고제 및 비정규 악법 철폐,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 교사,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 야간노동 폐지와 노동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 노동제)으로 일자리 확대
- 삼성 이견희, 현대차 정몽구 등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기업살인을 저지른 악질자본가 구속
- 동희오토·현대모비스·인천공항 등 비정규직 기업 규제 및 처벌,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 생활임금 보장 및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 <공공성 강화>

- KTX 등 사유화(민영화) 정책 중단
-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협정 폐기
- 주요 산업과 금융 국유화

### <교육과 의료>

-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전면 실시
- 반값 대학등록금 아닌 대학등록금 폐지, 대학평준화
- 모든 환자에 대한 무상의료
- 민간영리병원 도입 중단 및 공공병원 전환

###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

- 모든 성 차별 철폐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보장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등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형태 보장
- 장애인의 노동권과 이동권, 탈시설 자립 생활권 보장, 부양의무제와 장애인 등급제 폐지
- 청소년 인권·정치활동 등 자주적 결사권 보장, 16세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국가 책임아래 청소년의 생활권 보장

#### <평화>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중단
- 한미 군사동맹 폐기, 한미일 군사협정 추진 중단
- 미군철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자유왕래 실시

#### <환경>

- 핵발전소 단계적 폐기
- 4대강 사업 원상회복, 골프장 건설 중단, 강력한 환경보전정책 실시

#### <주거>

- 강제철거 중단, 주거권 보장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 재산 전면 몰수

#### <정치사상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 폐기, 모든 양심수 석방
-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 4. 후보

### 1) 후보의 자격

#### “탐욕의 자본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노동자”

-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탐욕의 자본이 저지른 정리해고, 비정규직,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싸운 노동자 후보
- 노동자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공간을 가득 채웠던 자들에 맞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한 노동자 후보

#### <정리해고>

- 2001년 1월 김대중 정권의 1750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에 맞서 완강한 파업을 벌여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투쟁의 상징을 만들어낸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현 한국지엠지부) 전 위원장
-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에 맞서 77일 파업을 벌였고, 대한문에서 23명의 영정을 부여 잡고 싸워 쌍용차의 죽음을 전국에 알린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

#### <비정규직>

- 2005년부터 6년 1895일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싸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94일 단식투쟁을 벌여 정규직화를 쟁취해 비정규직의 상징이 된 김소연 기륭전자 전 분회장
-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표해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해 1750일 넘게 싸워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과 연대를 조직해낸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지부장

### <민영화>

- 2002년 2월 철도, 가스, 전력의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38일 동안 파업을 벌여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낸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의 선봉, 이호동 발전노조 전 위원장

## 2) 후보의 임무

-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군에 오른 모든 후보는 변혁모임의 대선투쟁을 대표하는 후보로 다른 어느 후보보다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모든 후보가 선출된 후보와 동일한 대선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선출된 노동자 대통령 후보는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투쟁을 조직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 3) 후보의 추천 및 선출

- 현장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고 광범위한 현장의 동의와 결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 선출한다.
- 대선투쟁방침에 동의하고 후보의 자격을 갖춘 후보를 공동선거투쟁본부 후보선출(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 구체적인 후보 선출 방법은 대선투쟁방침에 동의하는 세 세력들과의 공동선거투쟁본부에서 논의한다.

### ※ 참고사항

- 한국지엠 김일섭 동지는 2007년 금속노조 한미FTA 반대 파업으로 인해, 재능교육 유명자 동지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법적 등록이 어려움.
- 김소연, 김정우, 이호동 동지는 집행유예가 만료되었거나 현재 재판 계류 중이어서 법적 등록이 가능하며, 변혁모임은 세 동지를 후보로 추천함.

## 5. 선거대책팀

1) 변혁모임은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위해 선거대책팀을 구성한다.

2) 변혁모임의 대선투쟁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및 개인과 공동으로 대선투쟁을 전개한다.

- 변혁모임의 대선방침에 동의하는 세력과 '공동선거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10월13일 활동가대회가 끝나면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의 대선투쟁을 제안해 '공동선거투쟁본부'를 구성한다.
- 공동선거투쟁본부에 변혁모임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선출(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선출한다.
- 광범위한 대중적 방식의 선출 방안을 마련한다.(예 : 노동자 1만명 추천)

### 3)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의 이름으로 출마할 것을 제안한다.

- 예 :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대선투쟁본부

## 6. 재정

### 1) 원칙

- 투쟁하는 노동자 개개인 모두가 대통령후보라는 관점에서 민중재정의 원칙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 기탁금과 선거투쟁기금으로 30억원 이상을 모금한다.

### 2) 변혁모임 활동가

- 대상 : 변혁모임 활동가(500명)
- 목적 : 노동자 대통령 후보 기탁금과 대선투쟁기금
- 변혁모임 활동가 50만원 이상 모금(50만원×500명=2억 5천만원)

### 3) 현장노동자와 사회운동진영

- 대상 : 현장노동자 사회운동진영 시민 등
- 목적 : 대선투쟁기금
- 방식 : 현장노동자 모금 및 SNS(트위트, 페이스북 등) 모금
- 20억원(2만명×10만원)
- ※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후 후보의 계좌로 후원하면 10만원 세액 공제

## 7. 선거투쟁 계획

### 1) 방향

- 노동자 민중의 투쟁하는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 2011년 희망버스처럼 정리해고의 상징 쌍용차, 비정규직의 상징 현대차와 재능, 평화의 상징 강정마을 등 투쟁하는 현장에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집결해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자 민중의 있는 투쟁하는 현장과 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 현장,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농민과 철거민, 거대 유통 자본에 맞서 싸우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투쟁을 전개한다.

### 2) 계획

-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최소 주 1회 이상의 대규모 투쟁 계획을 마련한다.
- 10월26~27일 현대차 비정규직 양재동 포위의 날과 27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10만 촛불행진, 11월3일 생명평화대행진,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24일 쌍용차 범국민대회 등을 중심으로 선거투쟁 계획을 마련한다.
-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추후 마련한다.

### 3) 일정

- 10월13일(토) 전국활동가대회 대선투쟁방침 결정
- 10월15일(월) 대선투쟁방침 기자회견 및 공동선거투쟁본부 구성 제안
- 10월15~26일(월~금) 공동선거투쟁본부 및 후보선출(추대)위원회 구성  
후보선출(추대) 방안 마련
- 10월27일(토) 노동자 대통령 후보 확정 및 예비등록
- 11월10일(토)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노동자 대통령후보 출정식
- 11~12월 선거투쟁

<기자회견문>

##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대통령 독자 출마 완주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통해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얼마 전 어느 구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상납을 요구당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해고자에게 복직과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 배신하고 노조의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도록 회유했습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정규직 일터가 사라지고 비정규직 일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900만 비정규직은 차별의 문제를 넘어 노예의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이 용역강제의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민중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스런 재벌의 공간은 더욱 넓혀나고 있는데 가난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견디기 힘든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한숨소리 가득한 노동자 민중들에게 제 2의 IMF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재벌 중 90%가 내년에 경기가 악화되면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노동자들이 100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경제공황이 닥쳐오면 1998년보다 더 끔찍한 정리해고의 피바람이 전국을 휘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제안된 부유세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인하, 폐차보조금, 교환율정책 등 노동자 서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재벌의 공간에, 정리해고와 불법파견이라는 비정규직 착취로 채워진 재벌의 금고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여야 대통령후보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노동자의 벗이어야 할 자칭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900만 비정규직 고용지옥을 양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세력에게 야권연대를 협박하거나 구걸하면서 '닥치고 정권교체'를 떠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진보정당을 자칭하는 대통령후보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너진 노동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노조운동을 복원시켜내며,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에서부터 토론과 실천을 해왔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모임'(변혁모임)은 10월 13일 400명의 노동운동가들이 모인 전국활동가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노동자대통령 후보 출



마를 결의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공황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탐욕의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후보가 출마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1800만 노동자와 전국의 양심 있는 모든 세력들에게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단위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학술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학생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에게 제안합니다. 야권연대를 구걸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대통령 후보를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의 희망버스를 타고 탐욕의 재벌에 맞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2012년 10월 15일

###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모임(변혁모임)**

<변혁모임> 공동소집권자

김소연(금속노조 기륭전자 전 분회장) 010-6317-3460

김일섭(대우자동차노조 전 위원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011-267-5623

이호동(발전노조 전 위원장, 공공연맹 전 위원장) 010-9340-9007